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8.9. vol. 22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기사내용 미리보기

01 성시화
46주년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
02 특집1
춘천, 살아나리라!
03 사설
같이 가는 것이 좋다
04 특집2
긴급세미나-NAP 독소조항 & 강원학교인권조례 재추진 관련
07 춘천성시
Next Generation, Next Mission
08 선교
군선교 진중침례식
09 선교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10 통일
쥬빌리 통일 캠프를 마치고
11 기관
합기도 선도관
12 칼럼 / 영화이야기
13 교계소식 / 교회소식
14 잠깐
레바논 참극과 코라비아 로맨스
16 후원자 명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본부장 조영춘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신재원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033-256-1260 033-257-1260
holycc1972@daum.net



주님의 옷자락 마가복음 5:25~35 | 김용성 작가

성시화

46주년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에 대한 감사와 기대

올해 춘천성시선교대회는 성시주간으로 정한 매년 10월 첫 주에 열린다. 한 주간을 성시 주간으로 보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 춘천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환상을 보며 춤을 추는 복된 성시 대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번 대회는 춘천 교회 단체들이 마음을 함께 한 집회이다.

평소에 연합으로 모이는 대회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집중력을 높이며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의견들이었다. 먼저 기독교연합회가 부흥회를 성시화운동본부와 통합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홀리클럽도 매년 개최하던 연합집회를 본 대회를 대신 하겠다 양보와 자기 포기의 정신이 함께 하며 의미적으로 더욱 아름다운 대회가 되었다. 올해는 교경협의회도 한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며 명실 공히 춘천을 대표로 하는 의미 있는 대회로서 자리 잡음을 하고 있다. 이에 준비 위원들도 연합회들의 의견들을 조율할 분들이 함께 하며 날짜와 강사 그리고 시간 배분도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하였다. 지금은 모든 연합회마다 각자 이기주의적 성향 때문에 오히려 연합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춘천만은 그런 틀을 벗으며 서로의 유익들을 내려놓고 하나 됨의 본을 보여 주는 집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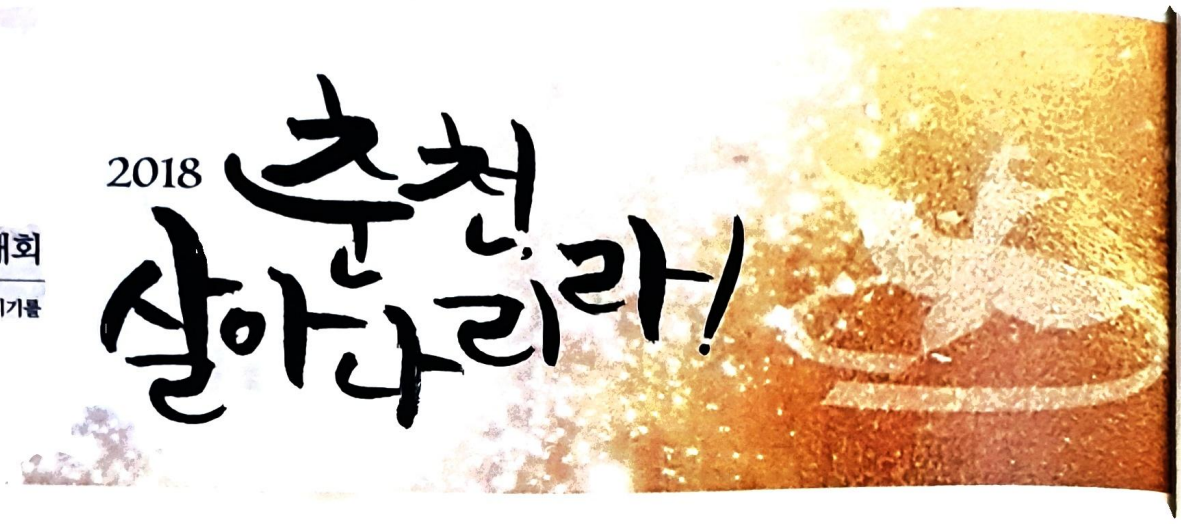
성시화 운동의 장자도시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춘천은 성시화 운동의 장자도시이다. 1972년 춘천을 통해 시작되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80여 도시가 함께 하는 비전이 되었고, 40여 개 나라에 이 비전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확산 되는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속 가능한 실천운동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데 있다. 셋째는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로써 성시화의 현장은 항상 일터 속에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일터를 확장하는 것이 무한대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누구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며 수평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기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기독교 연합 모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장기적 실행기관 또는 기획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적 모든 사역에 장기적 프로젝트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장점들이 되살아나며 회복됨으로 모든 도시들에게 이 전략과 가능성을 나누며 함께 민족 복음화의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상징적 집회 중심이 아닌 일터 속에서의 진정한 연합 하나 됨이 필요한 때이다. 춘천이 이를 위한 성시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때이다. 이에 2018년 춘천성시선교대회를 기대하게 된다.

춘천의 하나 됨을 모색해야 할 대회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외엔 희망이 없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모은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며, 사회의 도덕적 기반도 무너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고 젊은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 설상가상 이단들이 창궐하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력들을 키워가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가? 단순히 한두 교회가 대형교회로 발전하거나 몇몇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젠 도시 안의 교파 교회들이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 되어 진정한 연합 공동체로써 교회가 거듭나야 할 때이다. 하나 되어야 산다. 공동체만이 살 길이다. 명실공히 교회들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성장주의를 내려놓고 서로 참된 연합으로 힘을 모을 때만이 우리 시대를 변화 시킬 수 있다. 1만인 기도운동으로 서로 모이고 마음으로 뭉치고, 도시를 전략적으로 쪼개어 관계 전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향한 섬김의 문을 열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때이다. 이 성시화 선교 대회를 통해 이런 소망과 기대가 현실이 되는 꿈과 환상을 가져본다.

글 |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2018년 춘천성시선교대회가 열린다.

저녁집회 - 주강사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의 주강사이신 이수훈 목사님은 충남 당진에서 약 26년 전 당진동일교회를 개척했다. 당진동일교회를 가려면 일차선 도로를 따라 산을 넘어 논과 밭두렁 사이로 들어가 골짜기 속 소나무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는 신학대학원 2학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부흥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산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매일 매일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칡을 캐 칡차를 만들었다. 날마다 발길이 가는대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무작정 골목마다 집집마다 돌아 다녔다. 전도가 전부였던 사역에 어려움도 낙심할 만한 일도 많았고 기대치만큼 열매도 없고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기 일 수였다. 그러나 쉬지 않고 현장에 나간 결과 첫 해 20가정이 다음해에는 80가정으로, 목사 안수를 받던 3년차에는 160가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 현장의 숱하게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이번 선교대회에 나눠질 것이다.

지금은 5천여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고, 골짜기 곳곳마다 수백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뛰어 놀고 있다. 당진동일교회의 비전은 지친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출산을 강조하고, 교회에 방과 후 초등교육 기관인 VCA(Visionary Christian Academy), 살렘어린이집, 중고등 대안학교인 시내산 기독학교 등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는 화요 행복학교가 진행되고, 전도폭발 훈련, 사랑의 김장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전도방법과 섬김 사역이 진행된다. 또한 예수촌 공동체, 시내산 학교, 치유수양회, 교구별 역사체험, 꿈앤북 독서동아리, 영아예배(0세-3세), 영어예배, 월삭기도회, 초등부 방과 후 교육, 토요일 토라학교, 직장인 행복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버지 집(복지사역), 365일 주일학교, JCC국제교류캠프 등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으로 세대마다 전인적인 신앙공동체를 실현해가고 있다.

이를 춘천에 집목하여 이 비전과 꿈이 춘천을 천국화 하는데 귀한 밑걸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본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시간에 자녀교육 세미나와 목회자부부 세미나가 열린다.

전도세미나 - 정재준 장로
베스트 관계 전도 아카데미 개설

이번 선교대회의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전에 안산 동산교회의 정재준 장로께서 관계전도의 중요 전략인 베스트 관계 전도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정 장로님은 작년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춘천의 여러 교회들에 관계 전도 사역 비전을 나누었다. 올해 아카데미는 춘천의 현실에 맞는 전도 프로그램에 고심하면서 새롭게 개발하였다고 한다. 베스트 관계 전도는 단순히 전도지를 나눠주는 홍보성이나 이벤트성의 소모적인 방법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누구나 이웃을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실제적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전포자(전도 포기자)나 꿀 먹은 벙어리 교인들이 변하여 자신의 경험과 같이 변화된 참 일군으로 헌신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직장인들을 위해 목요 세미나를 저녁에 열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진행한다. 이번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전도에 대한 실제적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멘토 후속 세미나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 장로님은 춘천의 복음화를 위한 지속적 헌신을 각오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 전도 사역을 통해 춘천의 모든 교회가 동반 부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블레싱 춘천 -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

"지금 한국은 영적전쟁 중이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이정훈 교수가 마치 그런 급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반야심경 해설서를 즐겨 읽고 설명해 줄 정도였고, 동대부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더욱 불교철학에 심취하다가 동국대학교에 진학이념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군승까지 지냈다. 한국불교가 적극적으로 정치와 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그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학을 공부할 만큼 불교에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는 서울대법학과 박사과정을 하면서 진보인사들과 함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을 설립하여 교회를 공격하여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었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만들어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소탕하자는 취지로 입법을 기획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준비해서 교회를 초토화시키는데 앞장을 선 인물이었다. 이 교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시내를 다니다가도 십자가만 봐도 통곡을 할 정도가 되었다. 운전을 하다가도 차를 세워 놓고 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경종을 울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춘천성시 2017.12월 222호에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풀이내어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블레싱 춘천" 시간에서 들을 수 있다.

어린이 꽃잔치 - 어린이전도협회
무료공연 초청을 통하여 다수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프로그램 중 "놀라운 이야기"는 50여명의 훈련된 구원상담교사를 통해 초대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모든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년소녀합창단"과 "복화술", "어린이 뮤지컬의 공연"도 복음적이어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마당 코너"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과 즐겁게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포토존이 마련이 됩니다.

꽃잔치를 통해서 복음이 멀리 느껴지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문화를 통해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온다면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올해 10월 13일 토요일에 열리는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 많은 어린이들을 초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글 | 편집부

46주년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

- 일　시 : 2018년 10월 7일(주일) ~ 13일(토) 오전10시, 저녁7시30분
- 장　소 : 순복음춘천교회
- 주　제 : 춘천, 살아나리라!(에스겔 37장 5절)
- 강　사 : 이수훈 목사(주강사, 당진동일교회, 당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정재준 장로(전도세미나, 굿파트너즈), 이정훈 교수(블레싱춘천, 울산대학교 법학과)
- 일정표

	10월 7일(주일)	10월 8일(월)	10월 9일(화)	10월 10일(수)	10월 11일(목)	10월 12일(금)	10월 13일(토)
오전 10:00			자녀교육 세미나	목회자부부 세미나		전도세미나	어린이꽃잔치
강 사			이수훈 목사			정재준 장로	
저녁 7:30	저녁집회	저녁집회	저녁집회	저녁집회	전도집회	블레싱춘천	
강 사	이수훈 목사				정재준 장로	이정훈 교수	

사설

같이 가는 것이 좋다



글. 김종호 목사
(효자감리교회)

어느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곁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추위 속에서 앞만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고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 가던 사람은 쓰러진 사람과 함께 가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동안 머뭇거리다 망설인 끝에 쓰러진 이를 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낑낑거리면서 추위를 뚫고 한 발 한 발 내딛었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쓰러진 사람을 외면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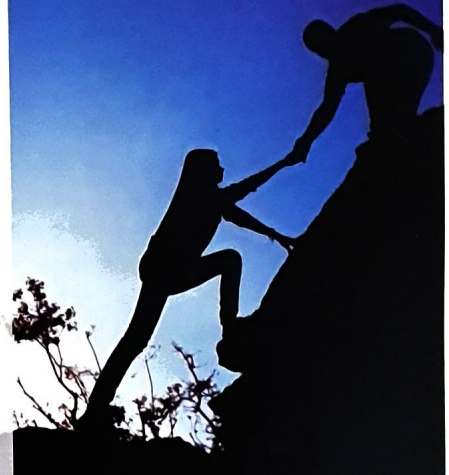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살 때 서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동네는 마을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라고 표제어를 썼습니다. 요즘은 '혼밥시대' 라며 혼자 밥 먹고 차 마시고, 혼자 여행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다인가구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과연 혼자 있는 것이 즐겁기만 할까요. 병이라도 난다면 큰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 죽으면 고독사라 합니다. 자살자 상당수는 주변에 대화를 나누거나 애환을 나눌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곤경에 처해 도움받기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3명은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고 같이 산다고 마냥 행복할까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일하고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 같이 어울려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책을 펴놓고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 외동딸, 외동아들만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벗 삼아 삽니다. 함께 어울릴 기회가 박탈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성적도 IQ도 연봉도 아닙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도 높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유치부나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는 공동체를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성인에겐 단기선교 활동도 좋은 학습의 장입니다. 교회는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공동체이며 소그룹 공동체, 식탁 공동체이자 기도 공동체이며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치유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만약 중풍병자가 혼자였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지붕을 뚫고 병자를 매달아 내렸기에 죄사함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같이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특집 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NAP 독소조항 & 강원학교인권조례 재추진 관련" 긴급세미나 개최

"거룩한 한국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자!" (벧전1:13~16)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초량교회 장로, 동성애동성혼반대운동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초청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는 지난 8월 31일(금) 저녁8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담임목사)에서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초량교회 장로, 동성애동성혼반대운동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을 초대하여 "NAP 독소조항과 강원학교인권조례 재추진 관련, 긴급세미나 & 금요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는 8월 7일(화)에 국무회의에서는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소강석 목사)는 물론 한국교계 기관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언론(7/4일자)을 통해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원학교에 바른 교육이 정착되기를 원하는 춘천 교계에서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정을 염두에 둔 조례 재추진에 대해 우려의 마음을 갖고 긴급세미나와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날에는 춘천교계 목회자 및 성도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길원평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춘천교계 이름으로 끝까지 저항의 뜻을 밝힌 성명서를 조영춘 본부장과 교계대표들이 발표하였고, 이수형 부이사장(순복음춘천교회)의 인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금요연합기도회가 있었다.

※ 세미나 강연 중, 중요 부분만 정리합니다.

길원평 교수의 간증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0일 새벽기도회 후 태어난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중3때 생물교과서로부터 생각이 발달해서 무신론과 유물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후, 미국유학을 가서도 믿음이 없었기에 과학을 통해 이 세상을 알고자 공부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 것이라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더 살아야 하느냐 마느냐는 고민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해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 역시 죽으면서 그러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죽는데,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죽음을 뛰어넘는 부분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의 세계에 궁금해 할 때 쯤, 어느 날 소파 침대에 누워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썩어질 몸과 썩지 아니할 영혼이 있다는 말씀을 읽으며 영혼이 있다는 말씀에, 나도 모르게 양쪽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주의와 유물론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31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부산대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곰곰히 생각했는데, 마치 내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영혼이 있으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져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나처럼 허무주의와 유물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꿈이 있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모습을 보며 자녀와 손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영적전쟁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신나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길원평 교수

성 명 서

" NAP에 포함된 독소조항(양성평등 무력화, 차별금지법제정 등)에 대하여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며,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강원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우려하며,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

첫 번째, "NAP독소조항(양성평등 무력화, 차별금지법제정 등)에 대하여 순교적 각오로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에서 정부는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 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인권존중과 평등과 차별금지' 와 관련한 정책안에 심각한 독소조항과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 계획안에서처럼 정부가 대다수의 건강한 국민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성 소수자들의 인권의 보호에 국가적 힘을 동원할 시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NAP는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은 무시하고 성 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 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 채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성평등이란 개념으로 여와 남을 넘어 5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성을 인정하려는 등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권을 NAP에서 옹호하며 국론의 분열을 획책하며 국가적 낭비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더욱 '차별금지법' 제정은 3번에 걸친(2007/2010/2013년도) 국회입법안에서 이미 무산됐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훈령인 '국가인권기본정책' 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차별금지법' 과 잘못된 인권의 보장을 통해 결국은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할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최악의 법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춘천 교계는 강원도와 한국 교계와 연대하여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두 번째, "강원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우려하며 이를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신문에서 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2015년 강원도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도의회에서 계류하여 무산되었다.

첫째, 강원도민들은 단순한 학교인권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만이 아닌 이념적 주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둘째, 강원도교육청은 지금 인권조례를 재추진할 때가 아니라,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강원도 아이들의 학력을 책임지고 학생과 선생님 간의 상호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을 맺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한 실력 있는 강원교육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할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원도와 춘천 도성을 위해 이를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2018년 8월 31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박인관 이사장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목회자연합회 춘천교경협의회 한국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춘천홀리클럽 춘천장로연합회
춘천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 지회 일동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 전 세계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국제인권규범은 동성애 차별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 거짓이다! 전 세계 통계를 보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한 국가는 193개국 중 78개국이다. 동시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없는 국가도 약140개(68%)국이다. 또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는 약180개(87%)국이다.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4개국 뿐이다. 대다수의 국가가 동성결혼 금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다.
- 한국은 동성애에 대한 조사에서, 비정상적인 사랑이다 : 73.8%(미디어리서치 2013.5), 동성애자에 거부감이 든다 : 78.5%(동아일보 2013.10)이다.

- 킨제이 보고서

킨제이는 자신이 양성애자였다. 킨제이는 모든 성(동성애, 동물 근친등)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교와 문화는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데이터를 모아 2권의 책을 만들었다. 미국 남성의 10%가 16-55세 사이에 최소 3년간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발표했는데, 이 결과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조사를 하여 발표한 것이다. 킨제이 후계자는 이 보고서를 인용하여, 국민의 10%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며, 교육이나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캐나다(2003년) 동성애자 1% 양성애자 0.7%, 영국(2012년) 동성애자 1.1%, 양성애자 0.4%, 미국(2013년 동성애자 1.6% 양성애자 0.7% 였다.

<중략>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는?

2015년 내국인 에이즈 감염자 누적 통계 총 12,522명 중, 남성이 93%, 여성이 7% 였다. 2000년 1,410명에서 2016년에는 15,108명으로 11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10~20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에이즈 감염자는 1만명(총 인구의 0.02%)이다. 한국 에이즈 환자 의료비, 간병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90% 의료보험, 5% 질병관리본부, 5% 지방자치단체) 하고 있다.

- 동성애자에게 AIDS환자가 많은 이유는,

50세 이상 동성애자의 일생동안 파트너 수가 1명은 2.75, 101~500명은 21.6%, 501~1000명은 10.2~15.7%, 1000명 이상은 10.2~15.7% (1997년 결과). 성적 파트너는 대다수가 모르는 사람들과 항문성교로 난잡하고 위험한 성 관계를 가진다.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표하지 않는다.

2015년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인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알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위험한 성행위임을, 담배에 경고 문구를 넣듯이,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기사를 못쓰게 하는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성적지향이 삭제되어야 한다.

<중략>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란?

- 인권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 5개년 계획이다.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 과제를 추진한다.(법무부 54개, 보건복지부 47개, 여성가족부 40개, 교육부 37개, 고용노동부 35개등
- 대부분의 272개 과제는 이미 통과해서 추진을 시작했다. 이미 불이 붙은 것이다.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 추진 대략 내용: 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②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 ③방송에서 성적지향 차별 게시물을 못하게 관리 ④ 경찰청에 '성수자의 이해' 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 제작 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성적자기결정권을 가르친

(뒷면에 계속)

다) 실시 ⑥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문화 확산 ⑦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성평등 교육 ⑧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⑨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검토 ⑩ NAP에 30차례의 성평등 단어 등장.

• 법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약 5%이고, * 독소조항이 있는 과제는 약 5%이다.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1) 헌법 36조 : 양성의 평등(equality of sexes) : 헌재 2001 헌가9 판례 - 헌법 제36조 제1항은 (중략) 남녀의 성(생물학적)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2) 양성평등기본법 -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년 1월 발간)] : 개념정의(62페이지)란에, ① 양성평등(sex) =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② 성평등(gender) =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 이와같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분명히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략>

중요한 것은, NAP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법무부 설명서에 명기되어 있다.

성평등 의미를 안다면, 누구든지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며 한국 내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국 각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 궐기가 일어나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실태

전국 4개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경기(2010),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
충북은 제정 후 폐기했다.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①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통제가 어렵고 교실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② 임신 또는 출산 차별 금지 조항이 학생의 성적 타락을 부추길 수 있다. ③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하고, 학교 내의 동성애 확산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권 침해 급증했다. ⑤ 학습 분위기 좋지 않게 되고 학력이 떨어진다. ⑥ 학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 ⑦ 종교 차별 금지로 사이비 종교를 비판 못하게 한다.

진보 교육감은 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가?

1)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투쟁적인 의식을 심어 장차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 어릴 때부터 철저히 좌파 전사로 양성하려 한다. 자신들이 정치 집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① 인권(교육)센터, 인권 옹호관, 인권상담실, 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등을 신설하려 한다. : 월급을 받으며 학생들을 세뇌시키게 된다.
   ② 학생인권교육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결국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강화하게 된다.

인권조례 제정 반대만이 해답입니다.

1) 동성애가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기독교계가 강력 반대하므로, 2015년 강원과 경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때 독소 조항이 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원교육청 관계자가 내부 회의에서 일단 제정을 하고, 나중에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의 녹음이 있다.
2) 현행법으로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 인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동성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3) 학생인권조례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고, 각 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한다.

결론

1) 우리가 가져야 할 것 :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철저한 거룩한 삶으로 경건의 본을 보이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진리를 표현하고 악법에 대처해야 한다.
2) 해야 할 일들 : ① 치유사역-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소 개설, 말기 에이즈 환자를 위한 쉼터 ② 학술활동-전문가 팀 구성(법조인, 의료인, 과학자) ③ 홍보활동-10대, 20대에 알려줘야 한다.
3)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막아내는 본을 보여 줘야할 사명이 있다.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정리 | 이은정 사무국장(주향교회 권사)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9월 81차 춘천모임



• 강사 : 이요한박사(국제 열방대학)
• 일시 : 2018. 9. 10일(월) 저녁 7:15
• 장소 : 주향교회(이병철 목사, 새청말길 5)
• 문의 : 010-6254-3162, 010-5675-8732

남/여 신학생 · 편입생
〈목사 · 전도사 수시모집〉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간)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연구원	(주/야간) 4학기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또는 이수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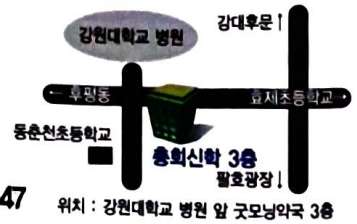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목제도가 있습니다.

〉특전
방학없이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여목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통신 과정 이수 가능)
본 과정은 서울 본원과 각 지역 캠퍼스와 동일함

〉입학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사진, 신분증 사본
편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강원신학 춘천캠퍼스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3
033)243-5354 / 010-5370-6047



위치 : 강원대학교 병원 앞 굿모닝약국 3층



ANNIVERSARY

CELEBRATING

춘천성시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Next Generation, Next Mission

성시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에는 안에 있었기에 이런 인사가 적당치 않았는데, 이제는 밖에 있으니 이런 축하 인사가 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렵사리 시작되어 춘천성시화운동의 문서선교의 명맥을 유지해 온 세월이 20년, 그간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온 편집위원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열매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지면을 만들 때마다 한 번도 수월한 적이 없었지만 차곡차곡 쌓여진 기사들은 춘천성시화의 중요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편집위원으로 또 십 년 이상 편집장으로 섬기면서 걱정한 것은 우리에게 바턴을 이어받아 춘천성시화를 위해 더 멋지게 사역할 다음세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성시신문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가교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와 도시를 서로 소통시키고, 기성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하고, 일어나는 뉴스들을 신앙의 눈으로 분석하여 독자들과 나누는 일일 겁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를 것이 없이 세대별 차이, 진영논리의 차이가 더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면을 통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의 공격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에 맞추면 다음세대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다음세대에 맞추면 기성세대들이 어색해 합니다. 그러나 성시신문은 진리 위에 서서 성시적 관점을 가지고 세대 간에 좋은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성시화운동에 다음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세대를 선교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 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안타까운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일은 단기간에 걸쳐 완수될 일이 아닙니다. '1년을 위해서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어라' 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하여 내리는 결단은 어린아이, 청소년, 젊은이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 사회와 미래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는 우리의 자녀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감리교 전도운동 자료집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40%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동 자료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줍니다. 지난 10년간 불교와 천주교의 신도 수는 줄어든 반면 개신교의 신도 수는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불교나 천주교는 포교나 전도가 없지만, 개신교는 그래도 꾸준히 전도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 들리고 있고, 더욱이 청소년 선교, 대학생 선교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10여 명의 목회자들과 대학 캠퍼스를 찾아 복음전도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 30년 전과는 캠퍼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세대의 선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춘천성시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세대 선교도 역시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없어서 문제이지, 하나님께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세대의 문화와 언어와 사고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번역해 주는 것이야말로 다음세대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다음세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끌어안고 교회 안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일에 성시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시신문이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Next Generation, Next Mission"을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춘천의 유치원마다, 초등학교마다, 중고등학교, 대학 캠퍼스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글 | 최영조 목사 (전 편집장, 갈릴리교회)

지난 7월,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4,829명 진중 침례식을 거행 (4년 연속 총15,101명 침례)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 기하성 군선교위원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는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 전도 사역으로 군선교를 열정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 침례식



▲ 침례식 예배찬양



▲ 침례서약하는 장병



▲ 설교하는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 드라마공연 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



▲ 침례식



▲ 침례식



▲ 침례식



▲ 침례식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군선교사역으로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침례, 21사단 · 15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 및 21사단 사랑의 카페 기증, 부활절 계란 나누기, 사랑의 온차 보내기, 15사단 초급간부 행복플러스 행사, 기하성 군종목사 간담회, 2군단 연합 찬양제, 2군단, 7사단 군종병 신앙수련회, 육군본부 · 2군단 포병여단 · 15사단 MCF 조찬 기도회, 2군단 공병여단, 포병여단 종교안보 특별교육, 해군 청해부대 사역 지원, 군 장병 문화활동(영화관람 등), 문서보급, 장병위문활동, 군인교회 지원 등 황금어장인 군선교에 다양한 섬김으로 헌신하고 있다.

특별히 2015년부터 4년 연속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 침례식을 섬기고 있다. 지난 7월 21일(토)에 제529차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이 육군훈련소 연무관 및 야외 대형 침례장에서 있었다. 진중 침례식은 기하성 교단(총회장 김서호 목사)과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하고,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담임 김택조 목사)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가 주관하였다. 육군훈련소에는 연 12~13만 명의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세례는 연 19회로 7~8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으며, 19번 세례 중에 2번은 침례(7,8월)로 진행되고 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4년 연속 침례 예식을 섬겼는데, 한 교회가 4년 연속 침례 예식을 섬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5년 3,382명, 2016년 4,012명, 2017년 2,878명, 올해에는 4,829명, 총 15,101명의 훈련병 침례를 섬겼다.

침례예배 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연무대군인교회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김택조 목사(연무대군인교회 담임)와 구재서 장로(육군훈련소장)의 신축 경과를 듣고, 연무대 군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군선교의 전초기지로서 군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침례를 받을 훈련병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 1부 연무관에서는 최지훈 목사(입소대교회 담임)의 침례교리문답이 있었고, 연무대 군인교회 선교관 소예배실에서는 김택조 목사(연무대군인교회 담임)의 군선교현황 보고가 진행되었다. 2부 예배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청년부 찬양단과 워십팀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였으며, 장병들이 함께 찬양과 몸짓으로 하나가 되었다. 김택조 목사의 인도, 민경원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선교국장)의 기도, 박태하 목사(기하성 강원지방회 총무, 순복음봉덕교회 담임)의 성경봉독 후, 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 드라마팀의 "하나님의 사랑(창조-타락-구속-부활)"과 "because of you" 공연이 있었다. 드라마와 워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장병들이 보면서 함께 호응하고 감동을 받았다. 뜨거운 열기 가운데 이수형 목사(기하성 군선교위원장,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는 로마서 6장 6~11절 말씀으로 "예수로 죽고 살고"란 제목의 설교에서 "군 생활 21개월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침례를 받는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갖고 그 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멋진 인생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씀 후 고석환 목사(한기총 군선교위원장)의 격려사, 우시흥 목사(기하성 총무, 금호순복음교회 담임)의 축사, 김두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장로회장), 김화숙 권사(순복음춘천교회 총여선교회장), 김인수 집사(육군훈련소 MCF회장), 김권형 집사(연무대군인교회 침례부장)의 축하기념품 전달, 구재서 장로(육군훈련소장)가 이수형 목사에게 기념액자 증정, 김서호 목사(기하성 총회장,광주순복음교회 담임)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3부로 열린 침례예식은 박홍재 목사(기하성 군목단장, 특수전교육단 사자교회 담임)의 침례서약, 김대덕 목사(군선교연합회 총무)의 침례기도, 김택조 목사의 침례공포 후 가로 25m, 세로 20m의 대형 침례식장으로 이동해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를 비롯한 30여 명의 집례위원(기하성 목회자, 기하성 군종목사, 강원군선교연합회 목회자)과 30여 명의 보조위원(순복음춘천교회 장로, 안수집사)이 협력하여 침례예식을 실시했다. 이번 침례예식을 통하여 훈련병 4천8백여 명이 침례와 축복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 날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침례자 선물로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신앙서적, 생필품, 간식 등을 준비해서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순복음춘천교회 황기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군선교회장)는 "4년 연속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인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어서 기쁘고, 침례받은 장병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 | 정종승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국제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 · 훈련하는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를 소개합니다.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전도자요 제자 양육자요 선교사로 역 파송합니다.


▲ 국제음식 페스티벌


▲ 국제음식 페스티벌


▲ 문화행사


▲ 사랑의 연탄배달


▲ 주일예배 모습


▲ 주일예배모습


▲ 졸업과 학기를 마치고 떠나는 국제유학생


▲ 하베스트타임국제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I. 국제교회의 역사

춘천에서 국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에 춘천에 찾아온 국제 유학생들과 원어민 교사들과 이민자들과 외국인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교회가 필요했고, 그들을 품어줄 공동체가 필요했고, 그들로 하여금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필요와 중요성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외국으로부터 춘천으로 불러오셨고 춘천에 있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2005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던 미국인 럭(Richard De Graaf) 목사는 2005년부터 한국의 특정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한 끝에 그 도시가 춘천임을 확신했습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춘천에 온 에릭(Eric Beck) 형제는 자기 집에서 성경공부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니스, 쥬뎃, 에이제나, 미승, 크리스틴, 존 등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제임스와 바나바 등의 한국인 사역자들도 붙여 주셨습니다. 점차 기도모임은 성경공부와 영어예배로 성장했습니다. 한림대와 강원대에서도 영어예배와 성경공부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시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라는 뜻인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라는 이름을 정하여 2010년 10월 24일에 첫 주일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럭 목사(2010년-2014년)와 에릭 목사(2015년-2016년)와 박남신 목사(2017년-현재)가 담임목사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특별히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석사감리교회와 순복음열린교회와 YMCA와 효자감리교회 등의 사랑과 협력이 있었고, 일찍이 외국인 사역에 뜻이 깊었던 목회자들과 교수들과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2. 국제교회의 현황

현재 국제교회에는 2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로 강원대와 한림대에서 박사와 석사와 학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국제 유학생들입니다. 그 외에도 원어민 영어 교사들과 결혼 이민자들과 다문화 자녀들과 소수의 한국인들과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업이 끝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 자기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 가서 주님의 일군으로서 섬깁니다. 현재 국제교회는 박남신(갈렙) 선교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효자감리교회(김종호 담임목사) 2층에서 오후 4시에 주일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재적수는 70명 정도이고 평균 주일예배 참석자 수는 40여 명입니다. 담임목사를 포함한 4명의 리더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11명의 코디네이터들이 각 팀을 이끌며 교회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3. 국제교회의 사역 방향 및 주 사역

국제교회의 사역 방향은 국제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전도자요 제자 양육자요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21세기 선교사역을 위한 새롭고 중요한 전략입니다. 필자는 케냐와 미국에서 선교사역을 한 후에 안식년 차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에 이러한 국제교회 사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회는 상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 중에 강원대와 한림대 등에서 전도하고 성경공부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홈 그룹 성경공부와 기도회로도 모입니다.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는 매 학기 초마다 LTC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헌신된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 단기선교 비전트립과 선교사 후원을 통한 선교활동과 한국어교실 운영, 사랑의 연탄배달, 국제음식 페스티벌, 바자회, 바비큐 파티,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4.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제교회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계선교에 동참하고자 한 걸음씩 움직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하여 아래에 소개된 장 · 단기 사역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 단기 사역

1) 장기 사역 비전

가) 춘천에 거주하는 국제 유학생 및 외국인 약 2천 명의 10분의 1인 200명 전도 및 양육

나) 강원대와 한림대 사이에 국제교회 건물 마련: Global Vision Center로 운영하여 주일예배 및 기도, 국제유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생활, 지도자 훈련, 열방을 위한 비전과 교제의 장소로 활용

다) 한림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학생들을 전도하고 이들을 위한 사역 전개

2) 단기 사역 계획

가) 새학기 신입 국제 유학생들과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바자회 - 2018년 9월 8일

나) 추석 기간 외국인을 위한 명절 문화행사 (또는 리브박스 전달) - 2018년 9월 24-26일

다) 성시 춘천에서 열방 찬양의 밤(Global Praise Night) 개최 - 2018년 10월 중

라) 기말고사 시 뷔페 식사 대접 (또는 도시락 전달) - 2018년 12월 3, 4째 주

마) 국제 유학생을 위한 집회(Conference) 개최 - 2018년 12에서 2019년 2월 사이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주일예배 시간: 오후 4시
예배 장소: 강원대학교병원 앞 효자3동주민센터 앞 효자감리교회 2층
연락처: 박남신 선교사 (010-7454-6701)

글 | 박남신 선교사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담임목사)





쥬빌리 청소년 통일캠프를 마치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15학번 전산전자공학부 이아름입니다. 한동대학교에 8개의 통일을 준비하는 동아리 학회를 연합하고 여러 통일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한동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습니다.

쥬빌리 청소년 통일캠프는 무엇인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쥬빌리 청소년 통일캠프란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갈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을 키우고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쥬빌리 청소년 통일캠프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2015년에 한동대학교는 통일시대 인재양성의 비전을 공유하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와 MOU를 맺었습니다. 한동대학교 통일위원회와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협력관계로 저는 한동대학교 팀에 기획 및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는 "너와 나 우리는 피스메이커" 입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평화통일을 일으켜갈 주역인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담으려고 많은 스텝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쥬빌리 통일캠프를 담당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주제 "너와 나 우리는 피스메이커"를 활동프로그램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스텝들이 캠프 시작 3주전에 모여 피스,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감정을 나누고, 공부하였을 때, 비둘기가 날아다닐 것 같고 잔잔한 파도 같은 느낌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이겨내는 것도 평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변화들은 무엇인가요?

많이 부족했지만 이번 통일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변화는 청소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북한에 대해 많이 알지도, 통일에 대해 구체적, 지식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아쉬움을 가지고 찾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허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강의시간에 송인호 교수님이 각 시대마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잘 이뤄낸 세대들은 그 세대도, 그리고 다음세대도 축복을 받았다고 했던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하는 실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각자 분야에서 이번에 배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단국에서 일시적인 경제적 번영과 안정만이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으며 통일은 경제 이전의 자유, 인권에 관한 문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다." 존경하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님께서 통일법제리서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하셨을 때, 통일 후유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독일의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통일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에 독일 전문가 분이 하신 것이랑 같지만, 조금 더 저의 생각을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분단 약 70년의 시간으로부터 오는 다름과, 하나로 맞춰 가는 힘듦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방학을 다 반납하면서 까지, 학기 중에도 북한에 대하여 열리는 전시 등을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먼저 알았기에, 같은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에서 넘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 바라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인한 일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청년들이 통일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지금 현 시대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글 | 한동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아름(한동대학교)



기관

새벽이슬 같은 청년의 건강을 위한 단련의 장

합기도 선도관



▲ 허창 목사



20여 년 전 춘천에 유일한 크리스천 카페가 생겼다.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취득한 밴드의 일원인 박모 사장이 '팝갤러리' 라는 라이브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회심하게 되어 필자에게 간판 개명을 요청하여 '홀리 갤러리' 라 이름하고 라이브 찬양무대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당시 초신자인 박 사장이 목사님을 초빙하여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바로 허창 목사님이었다. 첫 인상이 농부 같은 친근함에 매우 건강하고 소박했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잠시 미국에서도 사역하다가 춘천으로 오셨다 한다. 그 때가 퇴계동에서 반석침례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활동을 하던 때였다. 가끔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교회도 구경(?)하고 자연스러운 교제를 가졌다. 몇 년 후 운영난으로 홀리 갤러리는 문을 닫게 되고 박 사장은 찬양사역 중에 소천하고 말았다. 목사님하고는 십 몇 년 소식이 끊기게 되었다. 어쩌다 한 두 번 필자의 화실을 방문하셔서 반갑게 회포 풀었는데, 몇 주 전 어느 날 나의 옛 제자를 대동하고 오셨다. 목사님의 교우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합기도 제자란다. 웬 합기도? 의아한 중에 그날 목사님과 식사 중에 오랫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중학 시절에 합기도를 익혀서 평생 연마해 오셨다는 것이다.

그동안 반석침례교회는 동내면으로 옮겼고 애막골에 합기도 선도관을 운영해 오셨다고 한다. 선도관이라는 도장은 춘천의 기독교계에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일한 체력 단련 도장이라 할 수 있다.

가족으로 사모 (김선자)와 결혼한 딸 (허나경/키즈카페 '더 가루' 대표)과 역시 결혼한 아들 (허서강/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근무) 그리고 손자 손녀 4명을 둔 허창 목사는 다부진 체격에 섬세한 감성이 엿보이는 친근함을 보여 준다.

선도관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운영 및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하 허창 목사님 말씀)

저희 집은 뿌리 깊은 전통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는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 살이를 하셔서 두 분 다 성균관으로부터 효자 책봉을 받으셨고 한의사였던 아버님은 향교의 전교(지금으로 말하면 유교학교 교장)를 지내신 분이라 지금도 저희 고향에 가면 '3대 효자집안' 의 효자각과 효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기적중의 기적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까지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다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공부하던 중 합기도 도장에 다니게 되었고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서 도장을 차려 체육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오늘 목회자가 되는 계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체육관을 차릴 만한 큰 건물이 구하기 힘들었는데 마침 고향 교회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여 옛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운동 배우러 오는 청소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릴 수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요예배 시간이면 관원들을 도복을 입힌 채 교회로 데려가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 전 까지 저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에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을 믿게 된지 6개월 만에 침례신학대학교로 진학하였고 졸업 후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합기도 선도관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92년도에 춘천에 오면서 춘천에 있는 합기도 관장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춘천시합기도연합회 임원으로, 대한합기도연합회 영서본부 심사위원장으로 봉사하다가 지난해부터 후배 관장이 경영하던 선도관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직 목사로서 도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도관은 본래 이름이 '신선' 이란 선자(仙)를 쓴 선도관(仙道館)이었는데 선교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로 宣道館으로 한자를 바꾸었습니다. 합기도라는 무술을 통해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청소년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메여 영혼도 정신도 혼돈 속에 빠져있습니다. 의욕도 없고 꿈도 없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을 만큼 교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때 무술을 가르치는 도장에서는 얼마든지 엄격한 예절과 도덕성과 인성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여 교육한다면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 (딤후 3:14-15)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훈련 받은 관원들로서 '합기도 선교단' 을 만들어 각종 행사에서나 또는 단기 선교팀과 연합하여 해외선교지에서 무술 시범을 통한 선교 활동도 펼치려 합니다.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치관의 혼돈 속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무술 수련으로 자신을 연마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바른 가치관을 확립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 장년, 노년들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희 선도관에서는 45세 이상 70세까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내 몸 지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조, 기본 낙법, 생활호신술 등을 3개월간 무료로 강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목사님들이나 선교사, 선교지망생들이 수련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강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 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우리의 선교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쪼록 춘천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합기도 선도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복음의 지경을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 김춘배 화백 (편집위원) · 사진 | 이은정 사무국장 (편집위원)

칼럼

내게로 와서 배우라



글. 김성호 원로목사
(실로암교회)

포도주의 맛을 기가 막히게 감별해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맛만 보고도 생산지와 연도를 정확하게 알아 맞혔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의 특별한 재주를 과시하기 위해 수십 종의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눈을 가린 채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신 그가 족집게처럼 이름을 대자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맹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한 모금을 마신 그가 약간 머뭇거리더니 다시 한 모금을 머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종류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걸 마셔보긴 난생 처음입니다." 포도주를 잘 안다고 떠벌리던 그가 정작 맹물의 맛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잘 낫다고 떠들어댑니다. 자기 홍보에만 바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웃은 이웃이 아닙니다.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할 텐데 세상 풍조만 닮아갑니다. 좌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고 평안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안과 안식,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또"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게서 듣고, 주님에게서 배우는 일입니다. 멍에는 낮아지지 않고서는, 남을 높이지 않고서는 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합니다. 그래야 평등한 세상, 평안의 땅, 진정한 쉼이 있는 나라에 살게 됩니다.

영화이야기



아이 캔 온리 이매진

보는 그 자체로도 은혜가 충만해지는 영화가 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적과 더불어 깊은 감동의 실화로 우리 가슴 적시는 아름다운 영화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 '네이버 영화' 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주 적절한 설명과 표현으로 소개되었기에 전문을 그대로 옮겨 나누고자 한다.

2018 년 봄,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한 듯한 영화 한 편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저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영화 팬들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영화 〈아이 캔 이매진〉은 개봉 주 〈블랙 팬서〉, 〈툼레이더〉 에 이어 박스 오피스 3 위를 차지하며 대규모 제작비와 화려한 특수효과로 무장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 틈에서 놀라운 데뷔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제작비 데비 10 배가 넘는 전 세계 흥행 수익에 이어 스크린당 평균 수익 개봉 주 1 위를 기록, 적은 스크린 수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흥행 신드롬의 주역이 되었다. 이는 오롯이 영화가 가진 힘으로 이루어낸 쾌거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한 곡이 탄생하기까지 실제 작곡자의 인생을 모두 담아낸 음악 영화로서 흥미로운 소재를 비롯해 영화 속에서 다양한 음악과 무대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음악 영화가 가진 매력적인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위대한 노래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 작곡자 바트의 힘들었던 성장기와 자신만의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킨다는 스토리는 모두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하기 충분하다. 더불어 폭발적인 고음이 느껴지는 주인공의 노래와 무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영화로 호평과 찬사를 얻었다. 2018 년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이 보여준 저력은 히어로물과 자극적인 영화들의 틈에서도 진정성과 작품성을 갖춘 작품이라면 관객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 시켰고, 친구, 가족, 연인 누구와도 즐길 수 있는 감동적인 실화 음악 영화로 입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의 가장 놀라운 점은 영화에 대한 평단과 관객들의 반응이다. 종교와 이념, 언어와 국경을 넘어 깊은 울림을 느낀 관객들이 드러낸 반응들은 실제로도 놀랍다. 지난 3 월 북미에서 개봉 후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영화 비평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의 관객 점수(Audience Score) 93%로, 실제 영화를 본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북미 개봉 영화 최대 평점 사이트 시네마 스코어는 이 작품에 A+ 등급을 주었는데, 최근 국내 극장가에 개봉한 작품 중 A+ 등급을 받은 주요 작품이 〈코코〉와 〈블랙 팬서〉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영화가 지닌 대중성과 작품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 캔 온리 이매진〉 신드롬과 같이 평단과 관객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작품의 완성도와 메시지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한 노래 속 숨은 감동적



인 비하인드 스토리와 드라마틱한 진정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높은 만족도 때문이다. 작품의 바탕이 된 위대한 명곡 'I can only imagine' 은 단 몇 분 만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노래를 만든 밴드 'Mercy Me(머시미)' 멤버 바트의 일평생이 담긴 가사이자 당대 최고 CCM 가수인 에이미 그란트의 곡이었다. 하지만 노래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작곡자라는 그녀의 뜻에 의해 다시 밴드에게 돌아와 역대급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노래와 영화를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는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넘어 찬사와 경외심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한 개인의 인생과 노래, 그리고 영화에 담긴 진정성은 국내 관객들의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글 | 김춘배 화백 (편집위원)

교계소식

제73주년 광복절기념연합예배



제73주년 광복절기념연합예배가 8월 15일(수) 저녁7시에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담임목사)에서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홍요셉 회장) 주관으로 열렸다. 광복절기념연합예배는 춘천중앙감리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경배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조용아 목사(춘목연 부회장, 성광장로교회)의 사회로, 대표기도에는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김한호 목사(동부장로교회),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여정을 위하여'는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춘천의 성시화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기도를 드렸다. 춘천중앙교회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홍요셉 목사(춘목연 회장, 예사랑교회)의 인사말씀 및 강사소개가 있었다. 이 날 강사에는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가 "믿음으로 보는 민족 해방"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김선일 목사(춘목연 회계, 소양성결교회)의 봉헌기도에 이어, 정덕현 목사(춘목연 총무)의 광고와 애국가 제창이 있은 후, 신재원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새춘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에는 춘천 지역의 원로 및 은퇴 목회자 부부 위로회를 8월 16일(목) 쟈스민에서 가졌다.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행사



한정협(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주관과 춘천기독교연합회(신재원 회장) 주최로 화천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행사가 7월 7일(토) 광명장로교회(김종익 담임목사)에서 장로교단 섬김으로 있었다. 이 날에는 교육생과 봉사자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시내 곳곳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사진 | 이은정

교회소식

순복음춘천교회

폭염에 위기가정 섬김, 성시화의 초석
춘천시청,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에 선풍기 200대, 포도당 200박스 등 물품지원



올해 여름 엄청난 더위는 8월에 최고치를 달하고, 9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7월 28일 기준으로 2000명을 넘어섰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극강 폭염에 고통받는 가정을 돕는 섬김이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에서 있었다. 매주 목요일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지역을 섬기며, 전도하는 모습을 본 복지담당 공무원이 후원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이수형 담임목사의 제안이 더해져서, 폭염으로 인한 위기 가정을 돕는 일에 순복음춘천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여 풍성한 섬김사역이 되었다. 이수형 목사는 7월 27일(금) 오후에 춘천시와 후평3동에 선풍기 200대, 포도당 200박스, 쌀 30포, 라면 20박스를 전달하였다. 전달받은 물품은 폭염으로 부터 취약한 각 지역 이웃들에게 방문전달 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가까운 이웃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춘천성시화의 아름다운 초석의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다.

강원재활원 사랑 나눔
2018 강원재활교회 여름수련회 섬겨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지난 8월12일 강원재활원을 찾아 강원재활교회 성도들의 여름수련회를 섬겼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교육부 교사들이 재활교회 성도 80여명을 대상으로 예배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공연 등으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재활교회 수련회 지원을 담당한 송승민 목사(청년부 담당)는 "재활교회 성도들이 지난해 수련회를 지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작년에는 참여했으나



올해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찾으며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었고, 작년에 찍은 기념사진을 아직까지 핸드폰 메인 화면으로 쓰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며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수련회에는 춘천시내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여 각 1시간씩 공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에는 순복음춘천교회가 수련회 오후 일정을 모두 진행하게 되었다.

취재 | 순복음춘천교회 정종승 목사 (명예기자)

온누리교회

통큰통독세미나 250여명 참여



온누리교회(담임 김창환목사)에서는 8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일 오후2시에 통큰 통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는 2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저자 직강으로 주해홍 목사가 맡아 진행된다.

취재 | 온누리교회 최규성 목사) (명예기자)

주향교회

기부 캠페인으로 연결된 여름성경학교

춘천주향교회(담임목사 이병철) 유초등부에서는 지난 7월 27일(금)~29일(주일)까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마태 5:13~16)"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 대해 배우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경공부를 하였다.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주일학교 4~6



학년 학생들은 주향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부캠페인을 열었다. 2주 동안 진행된 기부 캠페인을 통해 총508,400원이 모금되었으며, 기부금은 4~6학년 학생들의 손에 의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중범)에 직접 전달되었다. 기부금을 받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범 관장은"복지관이 30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아이들이 직접 기부 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모금된 기부금을 아이들이 직접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을 위해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주향교회 정시아(초등5) 학생은 "이러한 작은 착한 행실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장애인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취재 | 주향교회 채재관 집사 (명예기자)

사랑의 교회

"사랑의 음악회"를 열어 모인 후원금
월드비전을 통해 지역 저소득 어르신 밑반찬 제공

2018년 7월 1일(주일), 춘천사랑의교회(윤대영 목사)에서는 제10회 독거어르신 밑반찬지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국민가수 노사연을 초청하여 교회 본당에서 진행하였다. 음악회를 통해 모여진 후원금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최창일 관장)을 통해 전달되었고,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제공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석사감리교회

월드비전 '밀알의 기적' 협약식 가져

춘천 석사감리교회(손학균 목사)와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국민일보(사장 변재운)는 8월 7일(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밀알의 기적' 협약식을 열었다. 밀알의 기적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소외된 지구촌 이웃을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들과 함께 돌아보는 캠페인이다. 이들 단체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에스와티니(eSwatini)를 방문한다.

취재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안영미 팀장 (명예기자)



난민 문제… 인도주의 앞세운 순진한 다문화주의는 '썩은 동아줄'

[최덕성 칼럼] 레바논 참극과 코라비아 로맨스

기윤실의 성명

주일예배를 마치고 하버드대학 스퀘어까지 택시를 탔다. 택시운전사는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온 레바논 사람이었다. 운전사에게 "한국인들 상당수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주에 머무는 예멘인 무슬림 난민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갑자기 손을 가로젓고 고개를 쩔쩔 흔들었다. "레바논 살 난다. 레바논처럼 참극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니,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모순되는 이슬람 율법과 무슬림의 특이한 문화와 정신성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도 그러한 까닭이라고 했다. 기독교인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 프로테스탄트, 정교회, 로마가톨릭 신자 중 무엇을 믿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제주도의 무슬림 난민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기독교계가 난민 환영성명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국민 71만명은 청와대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을 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연합(UN) 난민기구와 OECD 난민협약 가입 국가다. 난민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하나님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에게, 한국인과 예멘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난민이었다. 예수께서도 출생 직후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그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은 차별, 배제, 혐오, 폭력을 넘어 창녀, 세리, 병자, 장애인, 이방인, 이족을 환대할 때 드러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국의 진보 기독교계 21개 단체와 함께 예멘 무슬림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성명(2018. 7. 16.)을 발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이웃,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의 연대 성명이다. 인도주의, 관용주의, 연민, 긍휼의 심정으로 난민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공동 성명은 이슬람 난민들이 위험한 범죄 집단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 '난민 괴담'이라고 한다. 가난한 나라, 낯선 종교에 대한 편견, 낭설이라고 한다. 근거 없는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지 말고, 차별과 배제를 버리라고 한다.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이슬람 혐오주의를 참회하라"고 꾸짖는다.

공동 성명은 인도주의를 앞세운 다문화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문화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상호 존중하는 태도이다. 무슬림 난민 문제는 다문화주의에 직결되어 있다.

과연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제주 난민 지식은 가짜 뉴스, 난민 괴담, 편견, 낭설인가? 무슬림 난민 문제는 엄중한 국가적 사회적 민족적 사안이다. 박혀 있는 돌을 빼낼 굴러 들어오는 돌일 수 있다.

레바논 다문화주의

레바논은 다문화주의 정책 때문에 초토화된 국가다. 다문화주의가 불러온 참극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레바논은 '종교 모자이크(Mosaic) 사회'다. 국민은 크게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나뉜다. 공식 27개, 비공식 40여 개의 종파가 존재한다. 각 종교 간 다양한 문화, 삶의 방식, 신념 등을 서로 존중하는 사회였다. 한동안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여러 종교인들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사이좋게 공존했다. 국가 권력은 종교 분포에 따라 균형 있게 배분됐다. 국가와 사회는 다문화주의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레바논은 한때 '중동의 파리'라 불렸다. "이집트 사람이 책을 쓰면 레바논에서 출판하고, 이라크 사람이 읽는다"는 말이 있다. 중동 무슬림 학생들이 문화 수준이 높은 레바논으로 유학을 왔고, 졸업 후 돌아가지 않고 정착했다. 그러다 일부다처제, 다자녀 문화에 따라 무슬림 인구가 늘어났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슬림 난민들이 몰려들었다.

어느 시점에 이르자, 무슬림은 힘을 결집하여 기독교 정부군을 공격했다. 교회당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사살했다. 기독교인 대통령을 살해했다.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이다.

기독교 국가 레바논은 유학생 정착과 난민 환영 정책으로 궤멸될 지경이 되었고, 도시들은 마비됐다. 무슬림은 세력을 규합하여 기독교 정부군을 공격했다.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는 자기들끼리 격전을 벌였다. 유혈 참극이 그치지 않는다. 현재 레바논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점령지인 남부에 살고 있다고 한다.

마론파 기독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건축에 레바논산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다. 성경은 레바논을 산, 숲, 수풀, 백향목, 들짐승과 관련시켜 언급한다. 레바논은 동지중해 해안 국가이며, 남쪽은 이스라엘, 북쪽과 동쪽은 시리아에 접해 있다. 영토는 경기도 크기만 하다. 현재의 인구는 609만 3,500명(2018 추계)이다. 국가 독립 당시 인구의 8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으나, 무슬림 유학생들의 정착과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으로 상황은 역전됐다. 2018년 현재 무슬림이 60%, 기독교인이 39%로 바뀌었다.

레바논은 인류의 오랜 정착지다. 지중해를 누비던 페니키아인, 앗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로마인들이 들어와 살았다. 아랍권 무역의 교두보였다. 로마제국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로마 제국, 곧 비잔틴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레바논은 마론파 기독교인이 다수인 나라였다. 수도사 마론(410 또는 423 몰)의 이름을 딴 시리아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7세기 말 무슬림들이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을 점령하자, 마론파 신도들은 레바논 산지로 거주지를 옮겼다. 685년 비잔틴 교회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교회를 세우고 직접 주교를 임명했다.

마론파 기독교 신자들은 12세기에 서방교회가 보낸 십자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했다. 서방교회는 십자군 전쟁에 기여한 마론파 기독교를 1182년 서방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마론파 신자들은 로마 교회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중해 연안에서 기독교 세력을 키웠다. 십자군이 중동에서 마지막 요새를 잃은 1302년 이후에도, 이들은 서유럽과 친분을 유지했다.

프랑스는 1638년 오스만 터키제국 내 기독교 집단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레바논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1918년 프랑스의 지배 하에 들어갔고, 오랫동안 중동의 활발한 상업적 ·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1929년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공화국이 됐다.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프랑스의 보호 아래 1943년 자치권을 획득하고 독립된 기독교 국가를 세웠다.

단성론,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마론파 기독교는 단성론(單性論, Monophysitism)을 추종했다. 단성론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신성과 결합하여 '유일한 본성' 곧 단성이 되었다고 본다.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고 믿는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단성론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단성론 추종자들은 로마 제국의 군대의 힘이 미치지 않는 바깥 지역에서 번성했다.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등지에 산재했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와 시리아의 야곱파 교회도 단성을 수용한다. 동방의 민족주의적 경향과 결합하여 다종교-다문화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다.

레바논 동방정교회는 유독 다문화주의를 선호했다. 해변 도시에 사는 정교회 신자들은 평지를 선호하는 압도적인 무슬림 세력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동방 교회 특히 시리아 교회와 맥을 같이 했고, 민족적으로는 자신들을 아랍인으로 여긴 까닭이다.

이들은 무슬림과 연계된 상황에서 아랍 세계와 범아랍주의를 받아들였고, 이슬람, 무슬림에게 호의적이었다. 레바논에는 이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아르메니아계 정교회가 있다. 소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존재한다.

대통령 살해

레바논에는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드루즈파 무슬림들, 그리고 작은 무슬림 그룹들이 있다. 무슬림 유학생들의 정착과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으로 인구 수가 증가했다.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불만이 고양됐다. 자기들끼리 대립하고 분쟁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정부군에 대항할 때는 세력을 규합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대립은 수도 베이루트를 파편 더미로 만들었다.

레바논은 종교적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다문화사회의 근간이 흔들리자, 종교적 세력에 따른 '나눠먹기' 식 정

치 구도를 만들었다.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인이 맡고, 수상과 국회의장 자리는 무슬림의 양대 종파 출신들이 차지하기로 했다.

기독교인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지를 등에 업는 친서방 정책을 추구했고, 무슬림 출신의 수상과 국회의장은 반서방 정책을 고수했다. 정파 갈등이 국가 전체로 퍼졌다. 1982년 9월 기독교인 대통령 바시르 제나옐(Bashir Gemayel)이 폭탄 테러로 무슬림에 의해 살해당했다. 대통령 당선 후 21일 만에 피살된 것이다.

레바논은 1989년 국회위원 의석을 기독교인과 무슬림 동석으로 배분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종파와 그 공동체를 대표했다. 네번째로 개정한 현행 헌법(2000년)은 종파간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의석 수를 종파별로 배분했다. 이 때도 1926년 5월 제정한 '대통령은 마론파, 수상은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 맡는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됐다.

국가는 영토를 지키는 전쟁조직이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군은 중앙통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나라 안의 종교적 갈등을 통제할 수 없었다. 무장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레바논은 힘을 가진 치안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틈을 타 무슬림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드루즈파는 각각 무장 민병대를 조직했다. 기독교 정부군에 뒤지지 않는 무장을 갖췄다.

갈등이 심화되자, 대통령은 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무슬림 민병대는 대통령이 자국의 내란을 스스로 막지 못하고 외국 지원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정부군을 공격했다. 시아파 민병대와 수니파 민병대가 단합해 공동의 적인 기독교 정부군을 공격했다. 무슬림들은 정부가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기독교 정부군을 공격했다.

남쪽의 이스라엘은 1979년 남부 레바논 일부를 점령했다. 국경지대에 안전지대를 설정했고, 점령지 방어를 레바논 정부군에게 일임했다. 반이스라엘 무슬림 무장세력들의 도발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레바논의 기독교 정부군은 친이스라엘이었고, 이슬람 민병대들은 반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무슬림 민병대들은 반정부 무력도발, 내전을 시작했다.

레바논의 교육은 다문화주의 정책 탓에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국민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마론파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프랑스 역사와 유럽 역사, 그리고 기독교를 배웠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미국 정복사와 개척사를, 영어와 기독교를 배웠다. 무슬림들은 아랍어, 이슬람 역사, 샤리아법, 꾸란을 배웠다.

레바논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마론파 기독교 국가였다. 그러나 무슬림 유학생들의 정착과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으로, 나라가 이슬람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인도주의를 앞세운 다문화주의 정책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왔다. 순진한 문화다원주의는 썩은 동아줄이었다.

신음하는 유럽

유럽은 제1 ·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남성이 부족하자,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의 체류를 허용했다. 다문화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였다. 유럽의 이슬람화는 순진한 인도주의, 진리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가치를 부정하는 반기독교운동, 출산율을 떨어뜨린 개인주의 등이 크게 이바지했다.

대부분의 유럽은 '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였다. 무슬림 문화를 비판할 수 없다. 혐오감을 표현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이슬람국가 등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를 자기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는 법을 만들었다.

영국은 영국 내 무슬림을 위한 샤리아법 법원을 130개나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은 다른 나라들과 자신들의 법이 충돌할 때, 이슬람법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갈등을 목도한 미국의 여러 주들은, 자기 주에서는 미국 법만이 효력을 가진다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은 무슬림의 종교적 · 문화적 배타성, 성폭력, 성추행, 테러, '타하루시'라고 하는 성폭력-윤간 사건에 시달리고 있다. 명예살인, 일부다처제, 다자녀, 노예제도, 납치 결혼, 여성차별, 학대, 여성할례, 아동성애, 강간, '지하드'라고 일컫는 성전, 참수, 화형 등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유럽 국가들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다자녀 일부다처제를 따르는 무슬림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 가치는 소멸되고, 기독교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프랑스 인구의 10%, 네덜란드 인구의 7%가 무슬림이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은 유럽연합의 난민 할당을 거부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약한 탓이기도 하지만, 이슬람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제국 건설

한 국가에 무슬림 인구가 1% 안팎일 때,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그룹을 지향하며 수면 밑에 잠복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1단계에 해당한다. 잠복(incubation) 단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무슬림 인구가 2-3%로 증가할 때는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과 군대, 그리고 소외계층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슬람화시켜 무슬림으로 개종시킨다. 덴마크, 독일, 영국, 스페인, 태국 등이다(2단계). 인정(recognition) 단계에서 샤리아법으로 무슬림을 통제하라고 요구한다.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서면, 무슬림 인구의 비율을 더욱 높이려는 본격적 전략이 시작된다. 프랑스,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이다(3단계). 침투(infiltration) 단계에서는 사회 각 기관에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 시민단체를 결성한다.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는 경우, 이를 기점으로 폭동과 소요사태가 시작되고 테러단을 조직한다. 단발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며, 기독교 교회나 회당을 공격하고 방화 · 파괴한다. 에티오피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4단계). 대결(confrontation)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샤리아법을 기존의 국가 헌법 체제에 통합하라고 요구한다.

무슬림 인구가 40%를 넘어설 때는 광범위한 학살을 자행하고, 상습적인 테러를 한다. 조직화된 세력에 의한 전시체제로 이행한다. 보스니아, 차드, 레바논 등이다(5단계). 강요(imposition) 단계에서 샤리아법을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신앙을 강요한다.

무슬림 인구가 60%를 넘어서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며, 정권 쟁탈과 인종청소를 하기도 한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근간으로 이슬람 신앙을 강요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배교자를 무자비하게 살육한다(6단계).

다음 단계는 국가를 이슬람국가로 만든다(7단계). 이상은 이슬람 연구가 피터 하몬드 박사의 〈노예, 테러, 이슬람(Peter Hammond, Slavery, Terrorism and Islam: The Historical Roots and Contemporary Threat, Cape Town: Christian Library Books, 2005, 105)〉을 참고한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무슬림의 최종 목표로 이슬람 제국 건설이다. 이슬람권에서 걸출한 정치-종교 지도자가 나타나면, 인구 18억 명을 가진 이슬람제국 건설이 가능해진다(8단계).

코라비아 로맨스

브리지트 가브리엘(Brigitte Gabriel, 54세, 여)은 기독교인으로 레바논 남부 기독교 마을, 곰팡이 피는 방공호에서 7년 동안 숨어 지내다 이스라엘군이 들어오자 이스라엘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녀는 "내가 어렸을 때는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였다. 지금은 파리가 유럽의 중동이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다문화 사회에서 무슬림과 공존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답한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며, 공존 가능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심지어 미국조차 레바논 꼴 난다"고 말한다.

윌리 딜리(Willie Dillie, 53세, 여)는 네덜란드 헤이그 시의원이었다. 무슬림 난민 반대운동에 앞장서다 지난 8월 8일 자살했다. 죽기 전 남긴 동영상에서 무슬림이 지난해인 2017년 3월 15일, 자신을 납치 · 강간 · 집단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회에서 입을 다물지 않으면 목 잘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딜리는 무슬림을 지지하는 전 자유민주당 동료 의원이 이 같은 공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무슬림의 여성 차별, 이슬람 혐오 표현자들에 대한 악행, 미움, 자기 자녀들을 해칠 위험과 두려움을 자기의 자살로 멈추기로 했다고 한다.

기윤실과 진보 기독교계 단체들이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 제주 무슬림 난민 환영 성명을 발표한 동기는 무엇인가? 이슬람과 관련한 인도주의를 앞세운 순진한 다문화주의는 '썩은 동아줄'이다.

기윤실과 진보 교계 단체들을 따라가면, 서울은 베이루트처럼 휴혈이 낭자한 파편덩이 도시로 바뀐다. 대한민국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레바논 꼴 난다. '대한이슬람국'으로 바뀌고, 이슬람제국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현 대한민국 정부는 '코라비아 로맨스' 시대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코리아와 아라비아의 로맨스 시대를 지향하는 듯하다. 헌법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무슬림을 포함한 난민보호 정책을 펼친다.

유럽을 이슬람화하고 기독교 국가 레바논을 참극으로 몰고 간 개방적 이민정책, 보편적 복지, 다문화주의를 적극 지지한다. 국회로 넘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슬림에 대한 혐오 감정 표현이나 문제 지적의 글과 발언도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선 여성들이 새까만 부르카, 니캅, 케도루를 쓰고 눈만 빼꼼 내놓고 서울 광화문, 대구 수성로, 부산 남포동, 광주 5 · 18 기념공원을 활보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2018.08.17]

글 |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전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 (지휘자)

교회음악(지휘)스터디 모임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후평 2동 주민센터 뒤
(부안초교 근처)
시온 피아노 교습소

헐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0.5596.3702 (총무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운탁구(후평단지시장집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합기도선도관(박물관 앞)
문의 : 01.0.3585.3620 (이영규 목사)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민들레 중보기도회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장소: 와이신협 3층 회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흥 강상모 강옥자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생수 김성희 김세환 김수국 김수연 김수일 김수정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용배 김옹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영 김은희
김일섭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녀 김종숙 김종옥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증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지훈 김진희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태현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옥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명숙 남궁자 남상구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호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경미 박금화 박금희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병화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순배 박애자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애
박중일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성문주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항
심효선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성남 오순자 오제영 오흥금 오흥수
용예중 용영욱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식 유용균
유재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성자 윤예지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자 이기환
이대만 이동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미영 이병일 이봉연 이상만 이상숙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성은 이소영 이숙희 이순옥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규 이영문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숙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종완 이종헌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수경 임순희 임생용
임영광 임우선 임윤희 임인숙 임청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양자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명옥 정미경 정미선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처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종현 조진경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지정훈 치재목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달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은영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최홍준 탁광희 하윤옥 한건영 한명수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진희 함종현 허 엽 허순영 허인영
허정자 현순덕 현연희 현재용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영희 황은주 황정숙 황태흠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교회 신성감리교회 아이교회 엠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에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한빛교회 한울성김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춘천와이신협 영광한의원 매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아가갤러리 베드로선교문화센터 월드비전
설곡산기도원

춘천성시신문을 개별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033-256-1260)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